

연령에 따른 공무원 횡령범죄의 영향요인 검정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age on the public servants' embezzlement crime

구경렬(Koo, Kyung Yeol)* · 이승우(Lee, Seung 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factors which influence public servants' embezzlement crime intentions and to prove whether age has the controlling effect on the inten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included the following variables : 'self-control' presented in the Theory of Self-control as the independent variable, 'embezzlement crime inten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age' as the moderator variabl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public servants 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workers at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utilized well-organized questionnaires to collect data. Specifically to investigate crimes of public servants, the questionnaires included several scenarios for fear that the result of the survey should be self-obvious. As a result, it appeared that public servants had higher intentions of embezzlement crimes when they had low self-control, when they were single, when they belonged to low income bracket, and when they had less educational backgrounds. Also,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embezzlement crime intentions, this study found that the lower the self-control the public servants had and the younger the public servants were, the higher the embezzlement crime intentions were and the higher the self-control the public servants had and the older the public servants were, the lower the embezzlement crime intentions were.

Key words: public servant, embezzlement crime intention, self-control, age, controlling effect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I. 서론

21세기에 있어서 범죄란 단순히 살인, 강도 등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통적인 유형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쉽게 인지되지 않거나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피해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보다 전문화되고 지능화된 유형이 지금 현실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상층계급에 의한 범죄행위가 점차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범죄유형의 하나가 Sutherland가 1939년 최초로 사용한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화이트칼라 범죄는 ‘거리의 범죄’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인지되어 왔으며 ‘범죄피해와 책임의 분산’과 ‘사건의 복잡성과 전문성 및 관대한 처벌’이라는 전형적인 특성이 가미되어 피해의 심각성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해당 범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희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사회적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조장하고 막대한 국고의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한 범죄라는 지적도 줄곧 제기되어 왔다(Sutherland 1940, Braithwaite 1985).

그러나 범죄 자체의 복잡성,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죄학의 다른 분야보다 학문적 논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설문조사 등 사례를 다룬 실증적 연구는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이윤호, 2011: 535).

이와 같이 중요성을 가지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가능하겠으나, 실제로 화이트칼라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자가 이러한 범죄를 더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향후 범죄 발생의 원인 분석과 함께 범죄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초기 화이트칼라 범죄를 연구한 고전 범죄학자(in classical theory)들은 Sutherland가 규정한 정의와 같이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화이트칼라 범죄가 일반범죄와 구분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동일한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이다. 그들은 기존의 실증주의 범죄학과 고전주의 범죄학을 모두 수용하여 화이트칼라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는 무계획적이고 순간적이며 우연히 충동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생물학적이거나 사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차이가 아니라 순간적 만족, 쾌락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자

기통제력의 차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 두 학자는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가 모든 종류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통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Gottfredson과 Hirschi는 단순히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가 화이트칼라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 보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변수들이 이러한 자기통제력과 범죄 발생 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낮은 자기통제가 화이트칼라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른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화이트칼라들의 어떠한 변수, 특히 어떠한 사회적 특성들이 낮은 자기통제력과 화이트칼라 범죄간의 상관관계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연구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한편, 공무원 범죄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으로서 최근 소위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의 횡령,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간 공무원의 횡령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징계 등 물리적인 관점에서 통제를 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어떤 사회적 특징을 가진 자가 범죄에 더욱 취약하고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자를 예측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실성있는 공무원범죄 해소대책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나 유형 등 개념적 논의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화이트칼라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인 공무원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인 공무원범죄 중에서도 날이 갈수록 범죄의 횡수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횡령범죄¹⁾에 대하여 자기통제력과 횡령범죄 의도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특히 공무원의 연령이 자기통제력과 횡령범죄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무원 횡령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개업종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에서만 총 361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횡령금액은 1,544억 원에 달하였다. 한편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징계문책을 받거나 고발 등을 받은 공무원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98건으로 그 규모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라는 용어는 Sutherland가 1939년 미국 사회학회 회장 취임 강연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 후 그는 자신의 저서인 『White Collar Crime』에서 화이트칼라범죄는 “존경받는 높은 사회적 신용과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의 과정에서 범한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therland, 1949: 9-10).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비록 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신분이나 지위 등을 이용하지 않은 살인, 강간 등 일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니게 된다(Sutherland, 1940: 1983). 그러나 한편으로 Sutherland는 자신의 저서 다른 곳에서 각종 수리업의 사기, 소득세 환부금 사기, 신발판매원의 사기 등도 화이트칼라범죄의 예로 서술하여 이 용어의 개념적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Sutherland의 사후 화이트칼라 범죄사용이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개념상 논란에서 쟁점은 행위주체 및 행위속성에 대한 규정 모두에서 제기되었다. 행위주체의 규정과 관련하여 세인의 존경을 받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기준은 모호하며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행위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조직 차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사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행위도 포함시킬 것인가 문제가 되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직업적인 지능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범죄까지 포함할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되었다(현대사회연구소, 1993).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에 대한 현재 가장 유력한 정의는 범죄자의 범죄동기에 따른 유형별 분류 및 정의라고 할 수 있다(Clinard & Quinney, 1973). 그들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그 동기에 따라 조직체범죄(organizational crime)와 직업범죄 (occupational crime)로 나누고자 하였다. 이들의 정의에 의하면 조직체범죄는 기업의 직원들이 그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기업의 공식적인 지원 또는 강화 속에서 저지른 범죄 및 기업자체가 저지른 범죄이며(Clinard & Quinney, 1973: 118; Coleman, 2002: 4-5), 직업범죄는 개인이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저지른 범죄 및 종업원이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 범한 범죄(Clinard & Quinney, 1973: 188) 이다. 이 두 가지 범죄유형은 기본적으로 기업자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와 기업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행위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의 화이트칼라범죄는 모두 직업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이지만,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분류의 의의가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분명한 것은 Sutherland가 주창한 화이트칼라 범죄론은 범죄행동의 원인이 사회

적으로 지위가 낮은 계층에 의해 사회적, 개인적 병리현상의 일환이라는 기존 범죄학 이론으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의 범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원인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대 범죄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범죄 연구가 주로 하층계급의 범죄에만 관심을 집중한데 반해 기업체들의 허위광고, 자산의 허위신고, 탈세, 상거래상의 뇌물수수, 공무원 매수와 같이 개인적 심리적, 병리적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중·상류계층의 범죄에 학문적 관심을 돌리는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직업상의 전문적 지식이나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비물리적 방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범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책임자와 그 피해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행위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한 설사 범죄행위가 발각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으로 자기방어를 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무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왔다(최인섭·최영선, 1996).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는 우리 범죄사회학계의 불모지 중의 하나로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화이트칼라범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접근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 외에도 우리 사회가 화이트칼라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

1) 자기통제이론의 의의

Gottfredson과 Hirschi는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을 제시하면서 범죄상황에서 범죄욕구 및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여부가 범죄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일반이론(general theory)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실증주의 범죄학과 고전주의 범죄학을 통합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범죄는 무계획적으로 순간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고 본다. 모름지기 범죄란 쾌락, 스릴과 같은 충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아 고전주의 범죄학인 범죄상황론의 입장을 따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범죄는 개인의 안정된 특정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 성향이란 순간적인 충동, 쾌락과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즉, 자기통제력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이론은 실증주의 범죄학인 범죄성향론의 입장을 수용하기도 한다.

위 두 학자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은 어릴 때의 가정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형성되면 개인의 안정된 성향이 되어 개인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유아시절 단순하고 재미있는 일만을 추구하거나 복잡한 일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것을 방지하면 아이들은 인내심과 참을성이 없게 되고 순간만족에

대한 자제력을 잃게 된다고 보며, 이러한 성향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어, 이렇게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범죄유혹과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범죄의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통제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본다(Grasmick et al., 1993; Ameklev et al., 1993; Wood et al., 1993). 첫째는 순간 만족욕구를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로, 자신의 충동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지,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목표에 관심을 두는지의 여부를 말하며, 둘째는 단순한 직업을 선호하는지 혹은 복잡하고 생각을 요하는 일은 회피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하고 셋째는 재미있는 일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모험을 좋아하며 스틸을 추구하는가의 여부, 넷째는 정신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을 선호하는가의 여부, 다섯째는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인지,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쉽게 화를 내는지, 좌절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자기통제력의 구성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위 두 학자 주장 이후 수차례 이루어졌다. Ameklev와 그의 동료들(1993)은 흡연, 음주, 도박과 같은 사소한 일탈행위와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흡연을 제외한 음주 및 도박은 자기통제력과 관계가 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Keane와 동료들(1993)은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를 하였으며, Wood와 동료들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 절도 및 마리화나의 사용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최인섭과 이성식의 연구(1994)와 김두섭과 민수홍의 연구(1996)에서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부분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학자의 주장이 화이트칼라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만으로 범죄행위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발생의 기회라는 상황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약한 사람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충동을 억제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기통제이론과 화이트칼라 범죄

범죄성향론이든 범죄상황론이든 전통적 범죄학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행위 자체의 근본 원인이 같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Gottfredson과 Hirschi는 낮은 수준의 자기 통제가 모든 종류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공통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통제력이 낮아서 범죄에 취약한 성향을 가진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도 예외 없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통제이론은 성인대상이라기 보다는 8세전후의 소년시절에 불우한 가정환경에 의한 사회화를 그 원인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의 전제는 위험지향적 성향, 정신적이지 보다는 육체적 활동 선호, 비언어적 의사소통 선호, 충동성, 폭력적 성향 등이 범죄를 통해 자극받고 결국 이에 적극 반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은 화이트칼라범죄 학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비현실적이고 각 범죄 유형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한 가지 이론으로 전통적인 범죄를 비롯하여 직업범죄, 기업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 모두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며, 세 가지 유형 범죄간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한다(Benson & Moore, 1992; Clinard & Quinney, 1973; Simpson & Piquero, 2002; Steffensmeier, 1989; Weisburd et al, 1990). 특히 Benson과 Moore는 기업의 임원이 일반적인 다른 생활영역에서는 높은 자아통제를 보이면서도 기업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자기통제 이론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Benson & Moore, 1992). 아 이러니하게도 자기통제이론이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범죄의 원인은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일반이론은 화이트칼라 범죄 옹호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일반 범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화이트칼라의 대표적인 유형인 공직사회에서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이 얼마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없이는 어느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1) 공무원 횡령범죄 관련 연구

횡령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형법학계에서 횡령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었고 범죄학 측면에서는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하고는 있으나 공무원을 특정한 횡령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공무원 횡령의 원인과 관련하여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나마 공무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로는 2012년 여수시 횡령사건을 사례 분석한 연구(김희정 등, 2013)가 있는데, 이 연구의 경우 회계비리 측면에

서 공무원 횡령을 다루면서 그 해결책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경제 범죄로서 횡령을 한 유형으로 다른 연구가 있다(한상훈, 2012).

2) 자기통제 이론 관련 연구

자기통제이론에 관련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Polakowski, 1994., Arneklew et al., 1993., Hwang @ Akers, 2003: 2006., 황성현, 2009.). 이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이론의 일반적 소개보다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하여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Langton(2006)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이론과 화이트칼라 범죄 중 직업범죄(occupational crime)에 해당하는 피용자 절도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낮은 자기통제가 범죄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그러나 피용자 절도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이론적 일반화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Benson and Moore(1992)도 낮은 자기통제와 화이트칼라 범죄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낮은 자기통제의 행동적 척도(behavioral measures)의 경우 사기나 횡령, 뇌물과 같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보다는 일반적인 노상범죄에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여기서 연구의 척도는 알콜 중독, 마약, 낮은 성적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Simpson and Piquero(2002)는 기업범죄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 이론과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y)을 실증연구하면서 MBA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조직이론의 척도가 기업범죄 의도를 측정함에 있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교통신호위반, 사고, 이혼, 알콜 중독 등과 같은 행동적 척도는 기업범죄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결과적으로 낮은 자기통제의 행동적 척도는 전형적인 의미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Simpson and Piquero, 2002: 509-511; Langton et al, 2006: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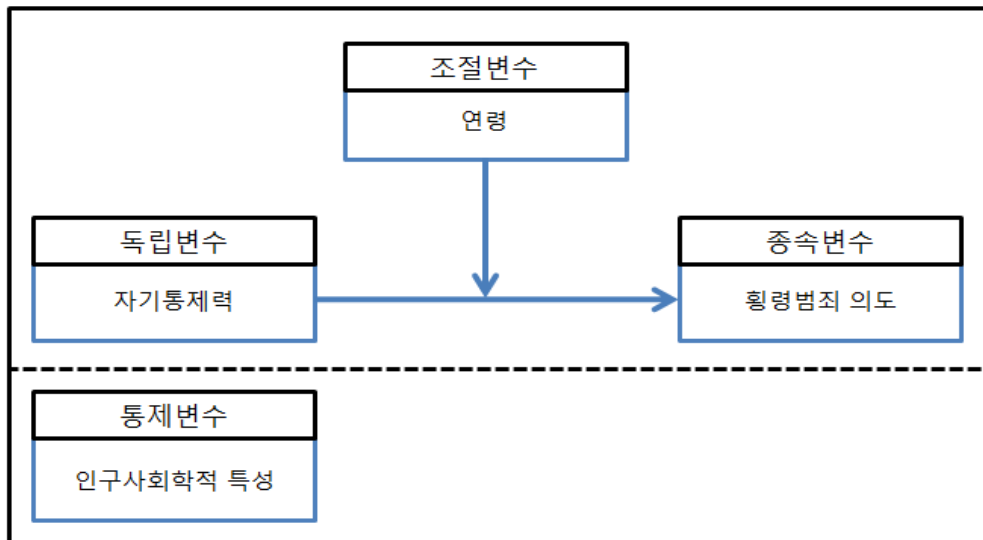
Ⅲ. 방법론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의 횡령범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연령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토대로, 독립 변수는 화이트칼라범죄에서 주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된 자기통제력을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횡령범죄로 구성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연령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수로 연령을 투입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반영하였다.

[그림 3-1] 연구의 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의 횡령범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당위론적이고, 모범답안적인 응답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에 형법상 횡령범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공무원에게 업무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각색하여 작성하여 응답결과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편중되어 나올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Schoepfer와 그의 동료들(2014)이 제시한 범죄시나리오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경우에도 공직자로서 징계책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광의의 횡령비행으로서 연구목적에는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의 수집은 감사교육원과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에 앞서 설문내용의 보다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지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문항을 수정·작성한 후에 최종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2일부터 동년 8월 1일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 응답 중 한 항목이라도 응답이 누락되었다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설문은 959부이며, 응답률은 95.9%로 나타났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무원, 나아가 화이트칼라범죄를 대표하고 있는 횡령범죄의 의도로 한정하였으며, Schoepfer와 그의 동료들(2014)이 제시한 범죄 시나리오를 국내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횡령범죄에 대한 시나리오는

“A는 ○○부처에서 지출관의 보조자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서 계약직 직원들이 보수에서 공제한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국세청 등에 납부하는 등 ○○부처 국고금 등의 출납 및 보수공제금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평소 노모와 자식 3명을 봉양하면서 아이 교육비, 노모 병원비 등으로 월급보다 평균 2백만 원을 더 지출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계속하여 다음 달로 이체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용카드 대금이 밀려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 되자 우선 급한대로 자신이 담당하는 보수공제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쓰고 다음달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다시 떼껴 넣으면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국고 출납업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고 공금도 채워지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수공제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카드대금을 납부한 후 다음달 동 금액을 떼껴 넣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묻는 총 9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1점(충분히 그럴 수 있다) ~ 5점(매우 부적절하다)의 Likert 5점 척도이며,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Cronbach's α = .761).

2)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에서 제시한 범죄 상황에서 범죄 욕구 및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여부로, Schoepfer와 그의 동료들(2014)이 타당성을 검토한 문항을 국내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총 24

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1점(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 5점(본인에게 해당된다)의 Likert 5점 척도이며,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Cronbach's $\alpha = .853$).

3) 통제변수

이 연구의 통제변수인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더미화하여 재코딩하였다. 그리고 연령은 1) 30대 미만,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혼인유무는 미혼은 '0', 기혼은 '1'로 더미화하여 재코딩하였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1) 200만원 미만, 2) 200~300만원 미만, 3) 300~400만원 미만, 4) 400~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직급은 1) 9급, 2) 8급, 3) 7급, 4) 6급, 5) 5급, 6) 4급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직급에서 공공기관은 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급수²⁾로 재설정하였다. 근무기관은 1) 중앙행정기관, 2) 광역자치단체, 3) 기초자치단체, 4) 교육자치단체, 5) 공공기관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1) 0~5년 미만, 2) 5~10년 미만, 3) 10~15년 미만, 4) 15~20년 미만, 5) 20~25년 미만, 6) 25년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연령은 자기통제력과 횡령범죄 의도 간의 조절효과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수로도 이용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횡령범죄 의도와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횡령범죄 의도를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의 정도와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실시한 후, 이 연구의 주요 가설인 자기통제력이 횡령범죄 의도에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앞선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횡령범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령을 중심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령과 자기통제력 관련 상호작용항을 차례로 투입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도구는 STATA 13.0 통계패키지이다.

2) 정부로 파견 나오는 공공기관 직원의 출장여비를 산정할 때 산정하는 직급 조정기준을 적용함.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전체 표본은 959명이며, 성별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미만, 3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원이상, 전문대졸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대체로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유무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다소 높게 제시되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그리고 200만원 미만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대체로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7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급, 4급이상, 5급, 8급, 그리고 9급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근무기관은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자치단체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15년 미만, 20~25년 미만, 15~20년 미만, 5~10년 미만, 그리고 25년 이상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대체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횡령범죄 의도는 평균 1.80(표준편차=0.51)로 제시되어, 대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은 횡령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자기통제력은 평균 3.50(표준편차=0.47)로 대체로 연구대상자들은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모든 변수들의 분포의 범위는 최솟값 1에서 최댓값 5로 나타났다.

<표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명	%
전체		959	100.0
성별	남자	740	77.2
	여자	219	22.8
연령	30대 미만	278	29.0
	30대	229	23.9
	40대	301	31.4
	50대 이상	151	15.8

구분		빈도				
		명	%			
학력	고등학교 졸업	26	2.7			
	전문대 졸업	39	4.1			
	대학교 졸업	754	78.6			
	대학원 이상	140	14.6			
혼인 유무	미혼	393	41.0			
	기혼	566	59.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3	11.8			
	200~300만원 미만	198	20.7			
	300~400만원 미만	161	16.8			
	400~500만원 미만	177	18.5			
	500만원 이상	310	32.3			
직급	9급	13	1.4			
	8급	18	1.9			
	7급	554	57.8			
	6급	187	19.5			
	5급	92	9.6			
	4급 이상	95	9.9			
근무 기관	중앙행정기관	84	8.8			
	광역자치단체	39	4.1			
	기초자치단체	129	13.5			
	교육자치단체	35	3.7			
	공공기관	672	70.1			
근무 기간	5년 미만	575	59.96			
	5~10년 미만	57	5.94			
	10년~15년 미만	108	11.26			
	15~20년 미만	75	7.82			
	20~25년 미만	91	9.49			
	25년 이상	53	5.53			
구분		N	Mean	Std.D	Min	Max
횡령범죄 의도		959	1.80	0.51	1	5
자기통제력		959	3.50	0.47	1	5

3. 횡령범죄 의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무원의 횡령범죄 의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2>

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횡령범죄 의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횡령범죄 의도가 다소 높게 제시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연령은 30대 미만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제시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19.2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제시되어, 학력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4.2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혼인유무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t값 7.4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순으로 제시되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12.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급은 9급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급, 8급, 4급 이상, 5급, 그리고 6급의 순으로 제시되어, 대체로 직급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4.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자치단체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F값 2.6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횡령범죄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년 이상, 5~10년 미만, 10~15년 미만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5년 미만을 제외한 기간들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F값 6.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2〉 횡령범죄 의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구분		Mean	Std. D	t/F
성별	남자	1.79	0.51	1.05
	여자	1.83	0.51	
연령	30대 미만	1.98	0.53	19.28***
	30대	1.77	0.49	
	40대	1.70	0.47	
	50대 이상	1.69	0.51	
학력	고등학교 졸업	1.97	0.69	4.29**
	전문대 졸업	1.84	0.52	
	대학교 졸업	1.81	0.51	
	대학원 이상	1.67	0.45	

구분		Mean	Std. D	t/F
혼인 유무	미혼	1.94	0.54	7.45***
	기혼	1.70	0.47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98	0.56	12.36***
	200~300만원 미만	1.94	0.53	
	300~400만원 미만	1.80	0.50	
	400~500만원 미만	1.70	0.47	
	500만원 이상	1.70	0.47	
직급	9급	1.87	0.47	4.04**
	8급	1.82	0.63	
	7급	1.86	0.53	
	6급	1.69	0.44	
	5급	1.71	0.53	
	4급 이상	1.72	0.47	
근무 기관	중앙행정기관	1.85	0.57	2.61*
	광역자치단체	1.74	0.36	
	기초자치단체	1.77	0.52	
	교육자치단체	1.55	0.37	
	공공기관	1.81	0.52	
근무 기간	5년 미만	1.87	0.52	6.53***
	5~10년 미만	1.68	0.46	
	10년~15년 미만	1.66	0.46	
	15~20년 미만	1.71	0.55	
	20~25년 미만	1.70	0.49	
	25년 이상	1.68	0.48	

***p< 0.001, **p< 0.01, *p< 0.05

4. 상관관계분석

<표3>은 이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중공선성의 판단 기준인 0.9이상의 상관계수를 넘는 변수들이 없었으며, 대체로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0.001 내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종속변수인 횡령범죄 의도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은 부(-)적 영향을, 학력은 부(-)적 영향을, 혼인유무는 부(-)적 영향을, 소득수준은 부(-)적 영향을, 직급은 부(-)적 영향을, 근무기간은 부(-)적 영향을, 자기통제력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

수록, 미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적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3〉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	1									
2	-.03	1								
3	-.22***	.14***	1							
4	-.11***	.08*	.08**	1						
5	-.23***	.19***	.76***	.11***	1					
6	-.21***	.02	.58***	.15***	.60***	1				
7	-.11***	.16***	.53***	.14***	.42***	.43***	1			
8	.01	.05	-.23***	.05	-.17***	-.03	.00	1		
9	-.15***	.02	.58***	.07	.50***	.41***	.72***	-.04	1	
10	-.25***	-.06	-.12***	.05	-.10**	-.04	-.08*	.07*	-.11***	1

1) ***p< 0.001, **p< 0.01, *p< 0.05

2) 1. 횡령범죄 의도, 2. 성별, 3. 연령, 4. 학력, 5. 혼인, 6. 소득, 7. 직급, 8. 근무기관, 9. 근무기간, 10. 자기통제력

5. 공무원 횡령범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의 횡령범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연령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모형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인 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 소득수준, 직급, 근무기관, 근무기관과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 변인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앞선 변수들과 연령과 자기통제력 관련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은 학력, 혼인여부, 소득수준, 그리고 자기통제력 변인들에서만 횡령범죄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변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은 부(-)적 영향을(=-0.272), 혼인여부는 부(-)적 영향을(=-0.109), 소득수준은 부(-)적 영향을(=-0.090), 학력은 부(-)적 영향(=-0.063) 등의 순서로 미치고 있었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전체 모형은 F값 13.99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해당 변인들은 횡령범죄 의도 변량의 14.0%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과 자기통제력관련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2에서는 앞선 모형1에서는 연령이 유의미하지 않게 제시되었으나, 모형2에서는 연령에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0.553), 자기통제력은 부(-)적 영향을(=-0.421), 혼인여부는 부(-)적 영향을(=-0.110), 소득수준은 부(-)적 영향을(=-0.092), 근무기관 중 교육자치단체는 부(-)적 영향(=-0.070), 그리고 학력은 부(-)적 영향을(=-0.063)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자치단체보다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연령과 자기통제력관련 상호작용항은 횡령범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횡령범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에 따라 더욱 증대될 수도 혹은 약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림1]을 통해 조절효과를 보다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듯이, 대체로 자기통제력이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횡령범죄 의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반면에 자기통제력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횡령범죄 의도가 보다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이 극단적으로 높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횡령범죄 의도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는 횡령범죄 의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령에 따라 큰 변별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모형은 F값 12.20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리고 해당 변인들은 횡령범죄 의도 변량의 14.1%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1과 모형2의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모형2가 모형1에 비해 0.1%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설명력의 향상은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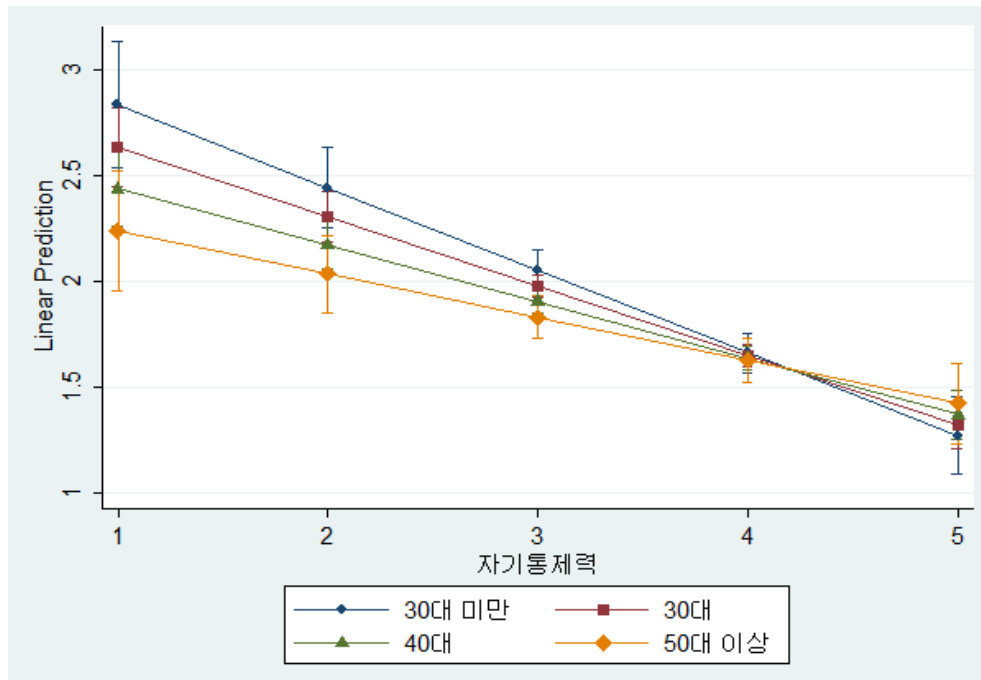
〈표4〉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명	모형1			모형2		
	B	SE		B	SE	
상수	3.270***	.163	-	3.835***	.323	-
성별	-.024	.039	-.019	-.025	.039	-.021
연령	-.048	.026	-.099	-.268*	.112	-.553
학력	-.059*	.029	-.063	-.060*	.029	-.063
혼인	-.114*	.052	-.109	-.115*	.051	-.110
소득	-.032*	.015	-.090	-.033*	.015	-.092
직급	.040	.023	.083	.041	.023	.084
근무기관 (기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079	.093	-.030	-.071	.093	-.027
기초자치단체	-.010	.070	-.007	-.009	.070	-.006
교육자치단체	-.185	.097	-.068	-.193*	.097	-.070
공공기관	-.041	.056	-.037	-.038	.056	-.034
근무기간	-.027	.015	-.087	-.026	.015	-.085
자기통제력	-.294***	.033	-.272	-.455***	.086	-.421

연령*자기통제력		.063*	.031	.465
N	959		959	
adj-R2	.140		.141	
F	13.99***		12.20***	

***p< 0.001, **p< 0.01, *p< 0.05

[그림1] 연령의 조절효과



V. 결론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을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이트칼라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적 특성의 대표적 요소인 연령이 이러한 양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위 두 학자의 견해와 같이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도 일반 범죄와 같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인 횡령범죄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라는 조절변수를 투입한 경우에 연령이 낮으면 연령이 높은 경우보다 자기통제력이 낮으며 횡령범죄 의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Sampson과 Laub이 2003년에 주장한 ‘발달이론(Development theory)’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를 중단하게 된다는 주장이 이 연구에서도 그 결과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즉 자기 통제력과 횡령범죄 의도와 관계에서 연령이라는 조절변수를 대입함으로써 연령이 위 변수간의 관계를 부(-)의 측면에서 더욱 밀접하게 연결 짓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자기통제력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연령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횡령범죄에 더욱 취약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직에 갓 들어온 경우, 대부분 연령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본다면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연령이 높고 공무원 경력이 많은 경우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날로 그 심각성과 횡수가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횡령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 신규 공무원에게 공직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과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몽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현금 출납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여러 가지 유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교육을 공무원 발령 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투철한 공직관과 도덕적인 윤리관을 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애초 공무원 조직 내에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무원 경력이 짧고 젊은 직원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배우고 충분히 동화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멘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위직부터 술선수범하여 멘토를 지원하는 등 관심을 보임으로써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공직관을 수립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다른 방안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공무원 청렴과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9월에 실시되는 ‘김영란법’을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여 범죄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되어 받게 되는 손해가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증대하여 범죄시도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청소년에 집중하여 연구되고 있는 일반이론을 화이트칼라 범죄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과 연령 외에도 소득수준이나 학력과 같은 다른 사회적 변수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 거시적 요인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압박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이 연구를 시작으로 상대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부패의 원인분석과 해결책 제시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1. 단행본

- 이윤호. (2015), 『범죄학』, 서울: 박영사.
 이윤호. (2015),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신호진. (2013), 『형법요론』, 서울: 문형사.
 이창환 · 이강훈 · 이완희 · 한우재 · 황성현. (2015), 『한국 범죄심리학』, 경기: 피엔씨미디어.
 임준태. (2012), 『범죄예방론』, 서울: 대영문화사.
 장홍근. (1992),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과 대응방안』,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조궁호. (1994), 『사회심리학』,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현대사회연구소. (1993),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과 대응방안』,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2. 연구논문

- 김상원. (2012),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과 유형 및 대책”, 『법정리뷰』 29(1): 21-33.
 김준호 · 이성식. (1995),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적용 및 평가”, 『형사정책』 2: 117-146.
 성낙현. (2005), “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체”, 『법조』, 영남대학교.
 연성진. (2007),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형사정책연구원.
 이성식. (199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태원. (1998),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에 관한 최근 쟁점들”, 『연구총서』, 형사정책연구원.
 정홍식. (1992),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현대사회연구소.
 최인섭 · 최영신. (1994),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승혁, 김범준, 김시엽. (2009),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최영인, 염건령. (2005),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원인이론”, 서울: 백산출판사.

국외문헌

1. Books

- Clinard, B. M., & Quinney, R. (1973), *Criminal Behavior Systems: A typology*,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Cole, George F. (1995), *The American System of Criminal Justice*,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Coleman, J. W. (1985), *The Criminal Elite*, 5th ed, California: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 Coleman, J. W. (1995), "Motivation and Opportunity, Understanding the Causes of White Collar Crime", in: G. Geis, R. F. Meier and M. Salinger (eds), *White-Collar Crime, Classic and Contemporary Views*, New York: Free Press.
- Cornish, D. B., & Clarke, R. V. (1986). *The Reasoning Criminal*, New York: Springer-Verlag.
- Eiser, J. R. (1986), *Social Psychology: Attitude,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ldstraw, J. E. (1998) *White-Collar Crime: Individual Motivation and Rational Choice*, dissertation submitted for MSc in Criminal Justice Studies, University of Leicester.
- Lafave, Wayne R., & Jerold, H. Israel. (2000), *Criminal Procedure* 3rd ed, St. Paul, MN: West Group.
- Mars, G. (1973), *Hotel pilferage: a case study in occupational theft*, in: M. Warner (ed), *Sociology of the Workplac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Mars, G. (1982) *Cheats at Work, an Anthology of Workplace Crim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Moore, M. (1980), *Notes toward a National Strategy to Deal with White Collar Crime*, in A National Strategy for Containing White Collar Crime, (eds). Edelhertz, H., & Rogovin, C. (1980), *Paternoster, R., & Simpson, S. S. (1993), A rational choice theory of corporate crime*. In R. V. Clarke & M. Felson(Eds), *Routine activity and rational choice: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5: 37-58,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Spencer, J. C. (1959), *A Study of Incarcerated White-Collar Offenders' in G. Geis, White Collar Criminal*, New York: Atherton Press: 335-46.
- Steffensmeier, D. J. (1989), On the courses of white-collar crime: an assessment of Hirschi and Gottfredson's claims in: G. Geis, R. F. Meier and M. Salinger (eds), *White-Collar Crime, Classic and Contemporary Views*, New York: Free Press: 400-12.
- Sutherland, E. (1949), *White Collar Crime*, New York: Dryden.
- Sutherland, E. (1983), *White Collar Crime: The Uncut Ver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ayne, R. Lafave & Jerold, H. Israel & Nancy J. King & Orin S. Kerr, (2009),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on*, A Thomson Reuters Business.
- Weisburd, D., Waring, E., & Piquero, N. L. (2008), *Getting beyond the moral dram of crime: What we learn from studying white-collar criminal careers*. In J. Minkes & L. Minkes (Eds), *Corporate and white-collar crime* (pp. 179-201). London, England: SAGE.
- Weisburd, D., Wheeler, S., Waring, E., & Bode, N. (1991). *Crimes of the middle class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Wheeler, S. (1992). *The problem of white-collar motivation*. In K. Schlegel & D. Weisburd (Eds.), *White-collar crime reconsidered* (pp. 108-123).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Wilson J. & Richard J. Herrnstein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 Schuster.

2. Articles

Arnekelev, B., H. G. Grasmick, C. Tittle, and R. Bursick. "Low Self-Control and Imprudent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 pp. 225-247, 1993.

Benson, M. L., & Moore, E. "Are white-collar and common offenders the same?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critique of a recently proposed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29, pp. 251-272, 1992.

Braithwaite, J. *Corporate Crim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London: Routledge and Paul Kegan, 1984.

_____. "White Collar Crim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pp. 1-25, 1985.

Braithwaite, J., & Fisse, B. "On the plausibility of corporate crime theory", In W.S. Laufer & Adler(Eds),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Vol.2, pp.15-38),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1990.

Clinard, M. B., & Quinney, R. *Criminal Behavior Systems: A typology*,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Coleman, J. W. *The Criminal Elite*. N.Y., St. Martin's Press, 1985.

Curry, T. R. and Piquero, A. "Control ratios and defiant acts of deviance: Assessing additive and conditional effects with constraints and impulsivity", *Sociological Perspectives*, 46, pp. 397-415, 2003.

Gibbs, John J., Dennis Giever, and Jamie S. Martin. "Parental Management and Self-Control: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pp. 42-72, 1998.

Gottfredson, M., & Hirschi, T.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Grasmick, H.G., C. Tittle., R.J. Bursick., and B.J. Arnekklev.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pp. 5-29, 1993.

Hickman, M., & Piquero, A.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control ratios, and deviance", *Deviant Behavior*, 22, pp. 323-351, 2001.

Higgins, George E. "Can Low Self-Control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Software Piracy Problem?", *Deviant Behavior*, 26, pp. 1-24, 2005.

Hirschi, T. "On the Compatibility of Rational Choice and Social Control Theories of Crime", In D. B. Cornish and R. V. Clarke (Eds.),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pp. 105-118), New York: Springer-Verlag, 1986.

Hirschi, T., & Gottfredson, M.R. "Causes of white-collar crime", *Criminology*, 25, pp. 949-974,

1987.

- LaGrange, T. and R. Silverman.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as an Explanation for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criminology*, 37, pp. 41-72, 1999.
- Langer, E. J.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pp. 311-328, 1975.
- Langton, L., Piquero, N. L., & Hollinger, R. "An empiric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self-control and employee theft", *Deviant Behavior*, 27, pp. 537-565, 2006.
- Nagin, D., & Paternoster, R. "Endur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of crime", *Law & Society Review*, 27, pp. 467-496, 1993.
- Piquero, A. & Tibbetts, S.G. "Specify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situational factors in offending decision making: Toward a more complete model of rational offending", *Justice Quarterly*, 13, pp. 481-510, 1996.
- Piquero, N. L., & Weisburd, D.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White-Collar Crime". In S.S. Simpson & D. Weisburd(Eds), *The Criminology of White-Collar Crime* (pp. 153-171), NY: Springer, 2009.
- Pratt, Travis C and Francis C. Cullen. "The Empe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pp. 931-964, 2000.
- Reed, G. E., & Yeager, P. C. Organizational offending and neoclassical criminology: Challenging the reach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4, pp. 357-382, 1996.
- Schoepfer, A., Piquero, N. L., & Langton, L. "Low Self-Control Versus the Desire-For-Control : An Empirical Test of White-Collar Crime and Conventional Crime", *Deviant Behavior*, 35, pp. 197-214, 2014.
- Sellers, S. "Self-Control and Intimate Violence: An Examination of the Scope and Specifications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7, 375-404, 1999.
- Shapiro, S. P. "Collaring the Crime, Not the Criminal: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White-Collar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pp. 363, 1990.
- Simpson, S. S., & Piquero, N. L. "Low self-control, organizational theory and corporate crime", *Law & Society Review*, 36, pp. 509-547, 2002.
- Steffensmeier, Darrel. "On The Causes of White-Collar crime: An Assessment of Hirschi and Gottfredson's Claims", *Criminology*, 27, pp. 345-358, 1989.
- Stylianou, S.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s and Manifestations of Low Self-Control in a General Theory of Crime : Two Comments and a Test", *Deviant Behavior*, 23, pp. 531-557, 2002.
- Sutherland, E. "White 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 pp. 1-12, 1940.
- Tittle, C. R., and Raymond Paternoster. *Social Deviance and Crime: An Organizational and Theoretical Approach*. Los Angeles: Roxbury, 2000.
- Tittle, C. R., David A. Ward, and harold G. Grasnick. "Capacity for self-control and individuals' interest in excercising self-control",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0, pp.

143-172, 2004.

Weisburd, D., E. F. Chayet, and E. J. Waring, (1990) 'White-Collar Crime and Criminal Careers: Some Preliminary Findings', *Crime and Delinquency*, 36: 342-55.

Wheeler, S. (1988), "White Collar Crimes and Criminals", Yale Law School Scholarship Repository, Paper 4127.

Wheeler, S., D. Weisburd, N. Bode, and E. J. Waring (1988) 'White-Collar Crime and Criminals',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25: 331-56.

투고일자 : 2016. 09. 05

수정일자 : 2016. 09. 28

게재일자 : 2016. 09. 30

<국문초록>

연령에 따른 공무원 횡령범죄의 영향요인 검정

구경렬 · 이승우

이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의 횡령범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한 자기통제력을, 종속변수는 횡령범죄 의도로, 그리고 조절변수는 연령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감사연구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공무원관련 범죄를 조사할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당위론적이고, 모범답안적인 응답이 나올 우려가 있어, 특정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횡령범죄에 대한 의도가 높았으며, 또한 연령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대체로 자기통제력이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횡령범죄 의도가 높으며, 자기통제력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횡령범죄 의도가 낮게 제시되었다.

주제어: 공무원, 횡령범죄 의도, 자기통제력, 연령, 조절효과